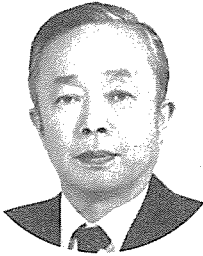


“과학기술 主體로서의 役割 다질때”



朴 泰 源 會 長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땅에서 科學技術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지난 1968년도에 한국과학기술단체 총 연합회가 주창하여 최초로 “과학의 날”이 제정된 바 있습니다

그후 이 과학의 날은 5회까지 과총이, 6회부터 작년 20회까지는 政府主導로 과학기술처가 記念行事를 마련해 왔습니다. 그러나 작년도부터는 科總이 다시 주관하게 되어 한층 감회가 깊다고 하겠습니다.

지난 歷史의 흐름을 돌이켜 보면 이땅에서는 오랜 유교적 관습과 인습으로 인해서 과학기술의 전통수립은 물론 합리적 사고방식이 결여되어 國家社會의 발전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쳤다고 하겠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오늘날 우리는 2천년대를 향하여 “科學立國·技術自立”이라는 슬로건 아래 세계속의 한국을 심겠다는 강한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百萬科學技術人들이 오늘도 연구개발과 산업현장에서 헌신적인 노력과 봉사를 다하고 있습니다.

광복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40여년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우리의 産業과 科學技術은 놀라운 정도로 발전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한 경이적인 經濟發展과 함께 政治·社會·文化 등 각 분야의 성

장을 이룩할 수 있게 된 것은 여기 모이신 科學技術人 모두의 숭고한 봉사와 노력의 결정임이 분명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점에서 특히 원로·선배 과학기술인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번 경의와 감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정부당국이 그동안 科學技術 政策을 효율적으로 추진함과 동시에 과학기술진흥의 당위성을 온 국민속에 깊이 심어주고 기술개발투자확대와 고급 두뇌의 양성 그리고 각종 산업기술혁신을 위한 制度的 뒷받침등을 착실하게 추진하여 온 점에 대하여도 높이 평가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百萬科學技術人 여러분!

서기 2000년대가 불과 10여년 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세기의 바뀔이라는 대변환기를 앞두고 우리 國民은 매우 큰 꿈과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해방 이후 온갖 인내와 각고를 겪으면서 그동안 이룩해 놓은 20세기 후반의 經濟發展과 최근에 진행되고 있는 民主化 過程을 바탕으로 우리나라가 2000년대에 이르러 경제·사회·문화 각 부문에 걸쳐 선진 수준의 福祉社會로 진입하고자 하는 열원도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열원을 달성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과학기술의 도약만이 중요한 관건이 됨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제반여건은 날로 어려워만 가고 있습니다. 특히 선진국은 선진국대로 保護主義 장벽을 더욱 공고히 하면서 제품발전과 관련된

기술이 통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특허권, 저작권등 지적소유권 보호의 강화로 인하여, 基礎科學技術의 지식마저 습득하기 어려워 지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결국 앞으로 우리는 우리들 스스로의 힘으로 기술개발과 수출증대를 통한 경제발전을 이룩해야 한다는 외로운 현실에 직면해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가적 차원에서 최우선적인 科學技術 施策이 절실하게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최근 科學技術處에서는 과학기술의 획기적 발전을 앞당기기 위하여 기초과학분야 연구를 체계적, 합리적으로 활성화하는 방안을 수립하고 특히 금년을 “基礎研究振興의 元年”으로 선포함과 동시에 이를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을 밝힌바 있어 기술개발의 기저가 되는 기초연구를 담당하여야 할 대학을 중심으로 참신한 연구개발풍토가 조성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도 기초연구와 인력양성의 중추기관인 大學과 學會에 대한 과감한 투자확대와 지원을 유도하여 대학의 참다운 연구분위기를 조성하는 동시에 學·研·産 협동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정부와 힘을 합하여 선도적인 역할을 담당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과학기술인 여러분께서도 과학기술 우위의 환경과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보다 능동적인 자세로 國家發展의 구심체, 견인차 역할을 수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과학기술인들은 과거 다소 피동적인 입장에서의 政策立案에 참여하였던 자세를 벗어나서 과학기술의 주체로서의 능동적 위치를 되찾음으로써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현실에 기초한 합리적인 政策을 모색하여 정부에 건의하

고,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함께하는 새로운 자세를 정립할 때가 왔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최근 技術自立의 기반조성인 기초연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우리 과학기술인 스스로가 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모든 學會와 大學 그리고 研究所등에서 요원의 불길처럼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것도 그 좋은 예라 하겠습니다.

우리의 살길은 오직 科學技術革新을 통한 국가발전이라는 목표아래 앞으로 기술개발 투자의 확대와 기초과학 육성은 물론 학회학술활동을 더욱 진작시키고 연구풍토를 조성함으로써 우리 백만 科學技術人들 스스로가 역사발전의 구심체라는 소명감을 더욱 가다듬으면서 국가와 민족이 우리에게 바라는 바가 무엇인가를 겸허하게 다시 한번 되새겨 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모든 국민의 의식속에 창조와 능률 그리고 합리의 정신이 심어지고 과학자와 기술자 그리고 기능인이 함께 대우받는 소망스런 풍토가 이룩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가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과학기술의 발달이 이땅의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더욱 풍요롭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인류의 행복에 폭넓게 기여하는 원동력이 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그 어느때 보다도 모든 과학기술인들이 책임과 도덕을 깊이 통감하는 일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학기술인들은 人類文明의 위대한 창조자이면서 동시에 휴머니즘의 진정한 파수꾼이 돼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이점에서 우리 과학기술인들은 우리가 처한 역사적 사명을 스스로 재인식하면서 21세기의 눈부신 科學文明을 선도해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고자 합니다.